

담당 부서: 주택실 건축기획과

건축기획과장

임우진

02-2133-7090

건축행정팀장

김정숙

02-2133-7093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2쪽

관련 누리집
(메뉴)

<https://openab.seoul.go.kr>
(배너)

서울시, '집합건물 관리단' 교육·전문가 컨설팅으로 입주민 피해 줄인다

- '2025년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지원' 시작... 오피스텔,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 관리 강화
- 7~10월 교수, 변호사,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 함께 관리단 운영 지원·사후관리
- 6.25.(수) '서울시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 교육', 대상단지 선정후 진행

- 서울시가 집합건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오피스텔, 상가,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진행하는 '집합건물 관리단 운영지원'을 실시한다.
- 이번 사업은 집합건물의 관리인 선임, 관리규약 설정, 관리단 집회 등 관리단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관리비 과다 청구, 부적절한 관리업체 선정, 공용부분 관리 소홀 등 주거약자의 피해를 줄이고 현장 중심의 해결 방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.
- 먼저 관리단 임원 등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6.25.(수) '서울시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 교육'이 실시된다. 관리단 집회 소집 및 결의 절차, 관리단 구성 방법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다룬다.

-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지는 7월부터 교수, 변호사, 주택관리사 등 집합건물 전문가들과 함께 관리단 집회 개최, 관리인 선임, 규약 제정·개정 등에 대해 1~3회 자문을 실시한 후, 온라인 실시간 상담, 만족도 조사, 업무 가이드북 등 제공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진다.

- 지원대상은 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’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, 상가,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이며, 관리인,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한해 서울시 집합건물통합정보마당(<http://openab.seoul.go.kr>)에서 신청할 수 있다. 단, 150세대 이상 규모 아파트는 별도의 ‘공동주택관리법’ 적용대상이므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.

- 한편, 2024년에는 집합건물 관리단 지원으로 80개 단지에 방문 상담 35건, 비대면 상담 594건을 제공해 5점 만점에 4.75점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.

-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“오피스텔, 상가 등 입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의 자율적인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.”며 “이번 사업을 통해 정보와 실무 능력이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집합건물 관리단에 교육과 운영 컨설팅을 지원해 자치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.”고 말했다.